

이광수의 기독교 사상과 종교다원주의

송 명 희*

차 례

- | | |
|--------------------|-----------------------|
| I. 서론 | 2. 이광수의 기독교사상과 종교다원주의 |
| II. 본론 | 3. <사랑>에 나타난 종교다원주의 |
| 1. 장로교회의 보수주의 신학비판 | III. 결론 |

I. 서론

소년시절에 천도교에 입문했던 이광수는 일진회의 장학금으로 일본에 유학하게 된다. 그는 기독교 계통의 명치중학에 다니던 중에 톨스토이를 접하게 되고, 그를 매개자로 하여 기독교 사상에 심취한다. 한편 이광수는 이십대 후반부터 화엄경, 법화경 등을 읽기 시작했고, 아들 봉근의 죽음 이후 승려가 된 그의 삼종제 운허(이학수)의 영향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 그리고 말년에는 성경과 불경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서 종교를 하나의 수양 도구로 여겼다고 한다. 이광수는 천도교·기독교·불교를 넘나들면서 세계관을 구축하였다고 한¹⁾ 신광철의 논평처럼, 그는 다양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신광철, 「식민지 지식인의 기독교 인식 -이광수의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한국

한 종교적 편력을 겪으면서 종교다원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갔다. 생애 자체가 종교다원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춘원은 여러 종교와 매우 밀접한 연관 속에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일찍이 백철이 내린 다음과 같은 평가는 바로 춘원의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춘원이 그의 작품들을 통하여 사상성을 표현하고 싶어 한 것은 기독교나 불교만이 아니고 유교 도교의 사상 근세의 국내적인 것으로선 천도교리 등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어느 편에 더 치중했는가 하면 기독교와 불교가 중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본시 춘원이 야심한 것은 동서의 종교설이나 학설을 자기 작품 속에 종합적으로 섭취하려는 엑스텐시브한 의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그 동서의 것들의 일치점을 찾아냈는가 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는데, 그 목표를 어느 만치 달성했는가는 또 문제(후략)²⁾

춘원 문학이 갖는 종교적 다양성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기독교 사상을 찾으려는 연구자들은 실망어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김병익은 <무정>에서 기독교는 “개화인으로서의 표상”³⁾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라고 했고, 이상섭도 이광수는 기독교적 개화인사로서 그의 <무정>은 “한국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 반응”만을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했다⁴⁾. 구창환은 이광수의 기독교 이해는 근대화를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측면에 기울었기 때문에 기독교 문학으로서는 미흡하며, 그의 문학에서 종교의식은 불교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독교적인 작품까지도 도덕성이라든지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기울어 큰 성공

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제 43호, 2000.7.8(인터넷자료)

2) 백철, 『춘원문학과 기독교』(『기독교사상』, 1964.3), 동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편, 『이광수 연구』(하), 태학사, 1984, 63쪽

3) 김병익,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 문학과지성사, 1984, 66쪽

4) 이상섭, 『신문학 초창기의 기독교』, 김주연 편, 위의 책, 31쪽.

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하였다.⁵⁾ 한승옥 역시 “이광수는 기독교를 신문학 초기에 받아들여 그것에서 기성문화를 거역할 힘을 얻고 용감하게 유교문화를 거부하였으나 끝끝내 기독교에 몰입하지 못하고 불교사상에 귀의”한 작가로 평가했다.⁶⁾

한편 김태준은 이광수가 진보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신자로서 후에 불교적 색채가 농후해진 뒤에도 기독교의 정신이 깊게 작용한 작가로 평가했다.⁷⁾ 이길연은 이광수가 성장기에 체험한 기독교는 그가 개종한 이후에도 그의 정신사적 측면과 작품 <무정>, <재생>, <흙>, <애욕의 피안>, <그의 자서전>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⁸⁾ 신익호는 이광수의 <재생>과 <애욕의 피안>에서는 선악의 갈등과 영육 간의 대결, 속죄를 통한 회개를, <유정>과 <사랑>에서는 숭고한 정신적 사랑을, <흙>에서는 희생과 봉사를 통한 휴머니티를 추구하였다고 보았다.⁹⁾ 김영덕은 춘원의 초기작품의 기독교사상이 신앙적 고백이라기보다는 낭만주의적 기독교사상이며, 인문적이라 했다.¹⁰⁾ 이인복은 춘원이 기독교의 대중보급에 공헌한 작가임을 인정하면서 그의 기독교는 항상 비교종교학 또는 비교사상론적 견지에서 수용되었으며, 이단과 대립하지 않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기독교관을 가졌다고 했다.¹¹⁾ 이인복이 말한 이단과

5) 구창환, 「춘원문학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 신동욱 편,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새문사, 1981, 11-130쪽.

6) 한승옥, 「기독교와 소설문학」, 소재영 외,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114쪽.

7) 김태준, 「춘원의 문예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명지대논문집』 3집, 1969, 소재영 외, 위의 책, 280쪽.

8) 이길연, 『한국 근·현대 기독교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01, 29-35쪽, 140-158쪽.

9) 신익호, 『기독교와 현대 소설』, 한남대학교출판부, 1994, 14-20쪽.

10) 김영덕, 「춘원의 기독교입문과 그 사상과의 관계연구」, 한국문화연구논총 5권 1호, 이화여대, 1965, 동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편, 『이광수연구』(상), 190쪽.

11) 이인복, 『한국문학과 기독교 사상』, 우신사, 1987, 27-38쪽.

대립하지 않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기독교관, 또는 비교종교학은 환언하여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보면 이광수를 단성적인 기독교 작가로는 보기 어렵다. 춘원은 기독교적 색채와 불교적 색채를 동시에 지닌 작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민족의 전래한 종합종교의식(유·불·선의 혼합종교)을 무의식적으로 답습”¹²⁾한 작가, 또한 천도교¹³⁾까지를 추가한 작가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광수는 종교다원주의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근대초기에 이광수가 기독교(장로교)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태도를 취했는지를 알아보겠다. 둘째, 이광수가 파악한 기독교 사상의 요체를 알아보고, 종교다원주의의 형성에 미친 톨스토이의 영향을 고찰하겠다. 셋째, 장편소설 <사랑>(1938)을 분석하여 춘원이 추구한 종교다원주의의 구체적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장로교회의 보수주의 신학 비판

1917년과 1918년 사이에 발표한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청춘』9호, 1917. 7), <금일 조선 야소교회의 결점>(『청춘』11호, 1917. 11), <신생활론>(『매일신보』1918. 9. 6-10. 19)이라는 세 편의 글은 기독교 전래 초기에 이루어진 기독교 담론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독교 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될 만한 글이다. 더욱이 이 글들은 소설과는 달리 직접

12) 윤희로, 『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연구원, 1992, 6쪽.

13) 이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 최원식, 「이광수와 동학」, 『관악어문논집』 3호, 1978.

적이고 명시적으로 춘원의 기독교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먼저 이광수는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1917)에서 ①한국인에게 서양사정을 알림, ②도덕의 진흥, ③교육의 보급, ④여자의 지위 향상, ⑤조혼의 폐를 교정, ⑥한글(언문)의 보급, ⑦사상의 자격(刺激), ⑧개성의 자각 등 기독교의 조선사회에 대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⁴⁾ 이는 주로 근대화와 관련된 내용들로서 근대주의자인 이광수는 기독교에 대한 평가조차 종교 그 자체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친 근대화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살피고 있음은 자못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초기에 언더우드의 선교신학은 교육과 사회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문화발전에 기여했다. 아펜젤러의 교육신학은 학교를 통한 선교활동에 주력했는데, 젊은 지식인을 장래 민족지도자로 육성하여 사회변혁의 일꾼으로 삼고자 했다. 따라서 구습타파 등 사회개혁운동의 지원과 교육에도 적극적이었다. 헐버트의 정치신학은 선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정치에도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의 정치밀사 역할도 기꺼이 수행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유교의 봉건적 구습과 폐습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고 교육과 언론을 통해 개화와 계몽을 시도하였다.¹⁵⁾

따라서 이광수가 기독교의 긍정적 영향을 논한 것은 언더우드의 선교신학, 아펜젤러의 교육신학, 헐버트의 정치신학 등이 우리나라에 끼친 근대화의 공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후일 사학자가 초기의 선교 사업이 개화의 방편이었으며, 기독교 전래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로서 한글의 재발견, 구습의 개혁, 술·담배·아편의 금지, 미신타파, 혼례·장례의 변화, 여권신장과 여성교육론 등을 꼽았던 것¹⁶⁾과 이광수가 쓴

14) 이광수,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 『이광수전집』제 10권, 우신사, 1979, 17-19쪽

15) 주재용, 『한국 그리스도교 신학사』, 대한기독교서회, 1985, 56-69쪽.

16) 이만열, 『기독교의 전래에 따른 한국사회의 개화』,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지식산업사, 1981, 9-47쪽.

글의 내용은 거의 일치하여 당시 그의 논점이 매우 정확한 것이었음을 입증한다.

<금일 조선 야소교회의 결점>(1917)에서 춘원은 자신의 기독교 비판이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아니라 단지 한국 교회, 교인에 대한 비판일 뿐이라고 밝힌다. 그가 지적한 한국 기독교의 결점은 ①계급적 위계질서, ②교회지상주의, ③교역자의 무식함, ④미신적 신앙행태 등이다. 특히 교회지상주의 및 배타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선교사들이 자기네의 청교도시대, 교회지상주의적 기독교를 전파함으로써 기독교 이외의 타 학문, 타 종교, 기타 모든 것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국가와 사회에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교사들의 눈에 우리 민족은 아프리카의 토인과 같은 야매한 민족으로 비친 나머지 문명한 민족에게 행하는 선교가 아니라 미신적 선교방식을 채택했으며, 천당지옥설, 사후부활, 기도만능설과 같은 미신적 신앙으로 몽매한 민중을 오도했다고 선교행태에 대해서도 거센 비난을 가했다.

이러한 비판적 논조는 <신생활론>(1918)으로 이어진다. 그는 기독교의 폐단을 ‘교회만능주의’라고까지 표현하는가 하면, 짧은 기간 내에 신도가 30만 명에 달한 교세확장을 ‘끔찍한 일’로 여기며, 문화를 가졌다는 민족으로서의 ‘일대 치욕’이라는 등 극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는 기독교 수용에서 보여준 우리의 무의식과 몰비판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는데, 자신의 기독교 비판이 장로교회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 장로교회의 경험이란 그가 오산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던 때의 일을 말한다. 교주인 남강 이승훈의 권유로 오산학교 교원이 된 이광수는 톨스토이가 서거(1910)하자 학생들과 함께 추도회를 연다. 이 때문에 톨스토이주의자로 지목되어 재단(교장인 선교사 로버트)으로부터 교리문답까지 받으며 심한 배척을 받았다. 그리고 ‘이단을 학생에게 고취한다’는 이유로 결국 제명당하게 된다. 당시 오산학교는 설립자 이승훈이 투옥되고 소유권이 장로교 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다.¹⁷⁾

이광수는 장로교 신학의 성경해석상의 보수주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 및 선교방식을 직접 겨냥하여 비판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로 인해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잦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성경 중에 윤리적, 사회적 요소보다, 현대인의 미신이라 할 만한 종교적 요소를 중히 여깁니다. (중략) 천당, 지옥, 상벌 등과, 기도의 힘이 족히 병을 치료하고 원격한 인의 영을 위안한다는 등, 이러한 점을 중히 여기며, 따라서 종교심 이외의 인성을 경시하고, 종교 이외의 과학이나 사상을 경시하고 따라서 현세를 경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주석과, 가르치는 자의 태도를 보아 알 것이되다. 이는 다만 조선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수백 년 전에 유행되었던 야소교외다.

이러한 해석이 정통(Orthodox)이 되어 일보라도 차범위를 초탈하여, 혹 각자의 신앙으로, 자유로 해석한다든지, 하물며 이지적, 가학적으로 해석한다든지 하면, 유교에서 사문란적(斯文亂賊)이라는 대신에 믿음이 없는 자, 악마의 유혹을 받은 자라는 명하에 배척이나 책벌을 받아야 합니다. 야소교회에서 설립한 중등 정도 이상 학교에서는 성경 교사와 학생 간에 끊임없이 이러한 희비극을 연출합니다. 우리는 유교라는 일 폭군을 면하자마자 야소교라는 일 폭군을 만났다 할 수 있습니다. 18)

이광수와 갈등을 빚은 한국장로교회는 보수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종파이다. 모페트(Samuel A. Moffet), 클라크(C.A.Clark) 등의 선교사들은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설립하여 성서만을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 여기며, 역사적으로 정통 칼빈주의의 전통을 표방하고, 청교도적 경건의 실천을 지향하였다.¹⁹⁾

하지만 한국장로교회는 선교 시작 당시부터 정통주의와 보수주의에

17) 이광수, 「두웅과 나」, 『이광수전집』제 10권, 595쪽.

박영호, 『씨을 -다석 유영모의 생애와 사상』, 홍익재, 1985. 56-63쪽.

18) 이광수, 위의 책, 349쪽.

19) 주재용, 앞의 책, 70-74쪽.

대한 지나친 신념으로 인해 스코트(W. Scott)의 진보주의 신학과 충돌을 빚었다. 스코트는 한국장로교회가 처음부터 근본주의 신학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보수주의 신학의 지나친 폐쇄성과 교리적 독단성을 비판했다. 그리고 비교신학적 입장에서 타 종교와 대화하는 신학을 소개하였지만 보수적 목회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²⁰⁾

한국장로교회의 지나친 보수주의는 너무나도 교파적이고, 한 신학자의 체계에 맹종하는 경향, 정통주의자들이 신앙의 불가결인 교리로 생각하는 처녀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이적, 속죄, 부활 그리고 성서의 영감설 같은 근본주의에 대한 맹신, 교리절대주의, 문자절대주의에 빠진 나머지 신학의 발전을 불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성서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와 사상에 구치시키고 말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²¹⁾

한편, 한국 신학의 기초를 마련한 선교사 신학도 후일 신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되는데, 첫째, 선교사들은 한국 현실과 신학적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구조와 역사에서 형성된 근본주의 및 정통주의 신학을 한국교회에 이식시키려 했다는 점, 둘째, 보수주의 신학 계열에 섰던 선교사들의 근본주의적 성서 이해로 말미암아 성서의 전체적인 문맥과 다양한 내용을 가르치지 못한 점, 셋째, 사회와 분리된 교회관의 문제로 대사회적인 문제에 간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회를 현실의 도피처, 영혼의 구원을 얻는 위안처로만 생각했다는 점, 넷째, 선교사들의 문화적 우월주의에 근거한 선교관의 문제로서 한국의 전통종교와 민중적 전통문화를 저급하고 미신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선교는 서구 문화의 이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 등이 부정적 역기능으로 지적되어 왔다.²²⁾

20) 위의 책, 84-89쪽.

21) 이종성, 『한국신학계의 좌와 우』, 기독교사상사 편, 『한국의 기독교사상』, 기독교사상 200호 기념 별책부록, 기독교사상사, 1975, 79-80쪽.

22) 주재용, 앞의 책, 96-100쪽.

한국장로교회와 초기 선교신학의 문제점은 이광수의 기독교 비판과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는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즉, 사회개혁에 적극적이었던 언더우드의 선교신학, 아펜젤러의 교육신학, 헐버트의 정치신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장로교회가 취한 대사회적 개혁운동이나 민족운동과는 분리된 배타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보수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비판을 가했다.

1910년대 후반에 발표된 글들에서 볼 때, 이광수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 입장과 근대화라는 시대적 목표에 충실한 선교적 과제의 발전을 기독교에 요청했다. 이는 근대지향의 민족주의자로서 당연한 요구였다. 하지만 장로교회는 대사회적 개혁운동이나 민족운동에는 무관심한 채 배타적, 근본주의적, 보수주의적인 신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광수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수 없었다. 춘원의 이와 같은 태도는 장로교회의 보수주의와 근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던 스코트의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과 동일한 입장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장로교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에 대한 거부감의 이면에서 이광수의 개방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 종교관을 읽을 수 있다.

2. 이광수의 기독교 사상과 종교다원주의

<두옹과 나>(『조선일보』, 1935.11.20)에 따르면 이광수는 명치중학교 4학년(18세) 때에 톨스토이를 처음 알게 된다. 야마사키(山岐俊夫)라는 청교도적 일본청년으로부터 『我が宗教』라는 책을 빌려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 빌린 책에서 톨스토이가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거세해버리는 데”라고 말한 것에 춘원은 크게 공감한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인류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만 평화의 세계를 이룰 것이다. 나는 일생 이 주의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며 톨스토이를 영적 스승으로 섬기게 된다.

이광수의 기독교 사상은 톨스토이를 매개자로 한 것으로서, 그가 톨스

토이의 종교론에 크게 감격한 이유는 명치중학의 성경 강의가 예수의 본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동경기독교청년회에서 기독교 연합으로 연 ‘전승(戰勝) 감사기도회’에 참여하였을 때에 든 회의 때문이었다. 즉 기독교의 본지에 어긋나는, 전쟁의 호전성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왜곡된 신앙에 대한 회의와 갈등을 톨스토이의 저서가 활연하게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때 느꼈던 현실의 교회, 목사, 교인 등에 대해 느낀 종교적 갈등은 이광수의 후기작의 하나인 <그의 자서전>(<조선일보>, 1936.12.22-1937.5.1)²³⁾에 잘 드러나 있다.

이광수와 톨스토이가 동일하게 파악한 기독교의 근본사상은 “사랑과 비폭력, 무저항”²⁴⁾이다. <그리스도의 혁명사상>(『청년』11권 1호, 1931. 1)에서 춘원은 마르크스-레닌이 폭력과 총과 증오와 분노로 세상을 혁명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는 사랑, 비폭력, 무저항, 용서로써 세상을 혁명한다고 말했다.²⁵⁾ 이 글은 신년을 맞아 춘원의 신앙의 일단을 고백한 글로서 발표지인 『청년』은 YMCA의 기관지였다. 따라서 이 글이 발표된 1931년께까지 이광수는 기독교 신앙의 범주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1935년에 쓴 <두옹과 나>에서 “지금 와서는 종교적 인생관에 있어서 나는 톨스토이와 길이 달라졌지마는 그의 예수교의 해석과 실천적 인생관에 있어서는 전과 같이 톨스토이를 선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기독교와 종교적 결별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 이후 이광수는 불교적 경향의 <이차돈의 사>(1937), <꿈>(1938), <무명>(1938), <원효대사>(1941-1942) 등을 집중적으로 집필하였고, <대성석가>(1939)라는 산문도 발표한다.

이광수가 톨스토이로부터 받은 기독교적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그것은 사랑과 비폭력, 무저항의 박애주의에 불과할까? 그리고 톨스토이의 기독교 사상은 장로교회의 교리와 어떻게 상치되기에 춘원이 톨스토이

23) 이광수, 『그의 자서전』, 『이광수전집』 제 6권, 331-332쪽

24) 이광수, 「톨스토이의 인생관」, 『이광수전집』 제 10권, 489쪽.

25) 이광수, 「그리스도의 혁명사상」, 위의 책, 254쪽.

주의자로 지목되어 오산학교를 떠나게 된 것일까?

톨스토이는 1901년에 소설 <부활>로 인해 러시아 정교로부터 파문을 당하였고, 그 역시 환멸을 느껴온 러시아 정교와 기꺼이 결별한다. 톨스토이에 대한 파문은 즉각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톨스토이가 러시아 정교와 결별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톨스토이는 다른 교파들에 대한 배타적 행태와 번잡한 의식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였고, 기독교의 주요교리인 삼위일체론, 원죄론, 예수의 동정녀 탄생설 등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종교의 타락은 모두 '①성직계급.중재자, ②기적에 대한 믿음, ③경전에 대한 믿음'에 기인한다고 하고, 참된 신앙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고 현대적인 지식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²⁶⁾

톨스토이는 『종교란 무엇인가』, 『교의신학해부비판』, 『4복음서번역』 등에서 당시 러시아 정교가 종교로서 제구실을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에 대한 배타적인 행태와 번잡한 의식 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인용문에서 보듯이 기독교의 주요 교리인 삼위일체론, 원죄론, 예수의 동정녀 탄생설 등을 부인하였다. 또한 종교의 타락이 성직 계급(중개자), 기적에 대한 믿음, 경전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하며, 참된 신앙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고 현대적인 지식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은 러시아 정교와 상치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톨스토이의 기독교관 및 그 비판은 1910년대 후반에 쓴 이광수의 논설에서 거의 동일하게 발견된다.

가) 학문이라면 사서오경인 줄로 알던 조선인의 사상은 그대로 온통

26) 강돈구, 『유영모 종교 사상의 계보와 종교 사상사적 의의』, 김홍호·이정배 편, 『다석 유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 솔, 2002, 342-343쪽.

야소교인이 전승하여 인생의 도라면 야소교뿐, 친구약전서나 차(此)에 관한 서적만이 학문인 줄 아옵니다. 피등(彼等)은 야소교도가 아닌 자를 이교도라 하여 교우를 피하고, 혼인을 금하며, 비록 어떻게 덕행이 높은 자라도 야소교도가 아니면 죄인으로 여깁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설을 그대로 믿어 금일의 자연과학을 부인하며, 사후천당설을 그대로 믿어 현세의 개인의 행복과 종족적 번영을 무시합니다. 기도와 송경과 전도만 하나님의 일이라 하고 기타의 모든 현세적 사무를 천히 여기며, 성경을 배워서 목사 되기를 귀히 여기되, 다른 학술을 배우는 것을 천히 여깁니다.²⁷⁾

- 나) 성경 중의 윤리적 사회적 요소보다 현대인이 미신이라 할 만한 종교적 요소를 중히 여깁니다. 환언하면, 오인의 이지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보다 초경험적 신비적 요소를 중히 여기는 듯합니다. 예하면, 처녀잉태설, 야소의 모든 이적, 육신부활, 승천, 재림, 찬송가 끝에는 십계명과 함께 사도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 십계명과 함께 매주일에 암송하는 것이니, 상술한 것이 그 내용이다.²⁸⁾

인용문 가)의 기독교의 타 종교(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자연과학의 부인, 사후천당설과 현세부인, 기도, 송경, 전도 등만 중시하고 현세적 사무를 천시하는 태도와 인용문 나)의 초경험적 신비적 기적에 대한 믿음 등에 대한 춘원의 비판은 톨스토이의 기독교 비판과 그대로 일치한다. 특히 “처녀잉태설, 야소의 모든 이적, 육신부활, 승천, 재림” 등의 초경험적 신비적 요소란 바로 장로교 신학의 근본주의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요목(the five essential)에 해당되며, 이광수는 이를 미신적 요소로 여기며 강한 거부감을 표명했다. 이처럼 톨스토이와 이광수는 동일하게 기독교의 근본주의 신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강하게 거부했다.

27) 이광수, 「신생활론」, 『이광수전집』 제 10권, 351쪽.

28) 위의 책, 349쪽.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아래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종교 일치사상을 펼치게 된다.²⁹⁾ 종교 일치사상이란 바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며, 톨스토이는 종교다원주의자로 평가된다.³⁰⁾

이러한 주의 강령은 바라문교에도, 유대교에도, 유교에도, 기독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모두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비록 불교가 신(神)의 정의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도 인간이 그것에 융합해서 하나로 되는 본원, 열반에 이르면서 자기의 소아를 잊어버리는 본원, 그러한 본원을 인정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인간이 열반에 달함으로써 하나로 결합되는 곳의 본원은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에서 신으로 인정되는 본원과 결국 같다.³¹⁾

톨스토이의 개방적 종교관 및 종교다원주의는 이광수에게 전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미 1910년대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춘원은 1910년대 초기에 토착신학자 다석 유명모와 오산학교 교원을 함께 지냈다. 이 때 둘은 톨스토이의 영향으로 종교다원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³²⁾

이광수는 톨스토이의 영향으로 기독교 절대주의의 독단에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조우하고 경험한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모

29) 위의 책, 340-344쪽.

30) 강돈구, 앞의 책, 340-344쪽.

31) 톨스토이, 김병철·김학수 역, 『참회록·종교론』, 을유문화사, 1981, 161쪽

32) 이광수의 기독교 사상 및 다원주의적 종교관 형성에는 오산학교 교사를 함께 지냈던 다석 유명모와의 교류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유석모는 오산학교 시절에 춘원을 통해서 톨스토이를 접했는데, 그는 “석가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은 대단히 같아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화엄경 80권을 배운 적도 있을 만큼 종교사상의 폭이 넓은 토종 신학자였다. 유명모는 1912년에 이미 비정통 무교회주의와 더불어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을 취했는데, 그것이 톨스토이의 영향일 것이라는 설이 있다. : 박영호, 『씨을 -다석 유명모의 생애와 사상』, 56-63, 98쪽 참조

두 포용하고 종합함으로써 종교다원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물론 그가 자신을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직접 언명한 적은 없으며, 그 당시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의 종교사상은 어느 한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문학적으로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작품이 바로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사랑>이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관계에 관한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기독교 절대주의, 종교다원주의, 포괄주의가 그것이다. 기독교 절대주의(Christian absolutism)는 성서적이며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으로 기독교만을 참 종교요, 절대종교로 믿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는 진정한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절대종교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포괄주의(inculcivism)는 기독교 절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절충하는 입장이다. 다른 종교나 문화권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사실상 기독교인이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³³⁾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관계문제는 기독교의 자기이해를 위한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종교신학이란 이름으로 폭넓게 논의되어왔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을 타고 다원주의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기독교 영역에서도 현저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감리교신학대의 변선훈, 홍정수 교수 등에 의한 종교다원주의 논쟁과 이들에 대한 교수 및 목사 자격을 박탈한 사건은 한국교회 및 신학의 보·혁 갈등의 첨예한 노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광수는 일찍부터 톨스토이의 기독교사상으로부터 절대

33) 목창균,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인가』, 『활천』 462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1992, 13-14쪽.

적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첫째, 예수의 근본정신을 사랑, 무저항, 비폭력의 실천으로 파악한 점이다. 둘째,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이고 근본주의적 기독교(장로교)를 비판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한 점이다. 하지만 그가 종교다원주의자가 된 것은 반드시 톨스토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종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종교다원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

3. <사랑>에 나타난 종교다원주의

이광수는 <사랑>(박문서관, 1938)의 '자서(自序)'에서 사랑을 "일체 생명현상 중에서 가장 숭고한 것"으로 정의한다. 그는 육체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과 무차별 평등의 사랑, 부처님의 사랑, 육체(동물적 본능)를 떠난, 즉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랑의 유형을 구분한다. 그리고 육체에 대한 욕망을 배제한 사랑야말로 사랑의 극치이며, 이런 사랑을 가졌다는 것은 인류의 자랑이라고 하였다. <사랑>에서 순옥은 안빈에 대해서는 육체의 결합을 떠난 순수한 영적 사랑을 추구하며, 육체적 본능 추구만을 목적으로 삼다 그녀를 배반한 남편 허영에 대해서는 무차별 평등의 부처님과 같은 이타적 사랑을 펼쳐 보인 주인공이다.

최정석은 <사랑>을 불교의 육바라밀이라는 관점에서 순옥의 행위와 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³⁴⁾ 김용태도 "'끝없이 높은 사랑'을 불교의 보살도로 심화"³⁵⁾한 작품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사랑>을 전일하게 불교적 작품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윤홍로는 "진화론적인 과학사상과 기독교 사상, 그리고 우리에게 뿌리깊이 박힌 불교사상 등과 어울

34) 최정석, 「작품 <사랑>의 사랑분석」, 『효성여대연구논문집』 8·9집, 효성여대, 1971, 138-141쪽.

35) 김용태, 「<사랑>의 사상적 연구」, 『수련어문논집』 2집, 부산여대, 1974, 『이광수 연구』(하), 469쪽.

러 전래적인 고유한 관습적 유품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세계관을 습합한”³⁶⁾ 작품으로 논평한 바 있다. 윤홍로가 말한 ‘새로운 세계관’이란 다름 아닌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종교다원주의적 요소는 작품의 발단에서부터 드러난다. 석순옥은 소녀시절부터 안빈의 글을 읽고 그를 흠모하여 왔다. 마침내 간호사 자격증을 딴 순옥은 중등학교 교원을 그만두고 안빈의 병원에 취직하러 찾아간다. 다음 인용문은 안빈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순옥의 눈에 잡힌 병원 대합실 풍경이다.

벽에는 위창 오세창의 낙관이 있는 전자 횡축이 걸렸는데, ‘病生於亂心攝而病自瘳’라고 썼다. ‘병은 마음이 어지러워진 데서 생기는 것이니, 마음이 잡히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無勞汝形無搖汝精可以長生’이라는 액이 붙었다. ‘네 몸을 곤하게 말고 네 마음을 흔들리게 말라. 그리하면 오래 살리라’는 장자의 말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 원장 안빈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였다.³⁷⁾

오세창의 서예액자에 적힌 말의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다른 액자에는 장자(莊子)의 말이 적힌 것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대합실의 책장에는 내방객을 위해 성경, 불경, 톨스토이의 소설과 여러 문학서적, 도교와 유교의 경전 등을 비치해 놓았다. 이 책들은 안빈이 기독교, 불교, 톨스토이즘, 도교, 유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종교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종교다원주의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뚜렷한 암시로 읽을 수 있다.

<사랑>에서 취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적 요소는 무엇보다도 안빈이란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데, 작가 이광수는 안빈에게 자신의 이상화된

36) 윤홍로, 앞의 책, 143쪽.

37) 이광수, 「사랑」, 『이광수전집』제 6권, 16쪽.

자아를 투사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는 대화중에 자주 불교를 인용하지만 동시에 기독교도 언급함으로써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한다. 다음은 안빈과 죽음을 예감하는 그의 아내 옥남과의 대화이다.

『우리가 이번에 만난 것이 처음인 줄 아시오?』

하고 이번에 안빈이가 고개를 들어서 옥남 편을 바라본다.

『당신과 나와는 과거에두 여러 천만 번 수없이 부부가 되었거니와, 미래에두 여러 억만 번 수없이 부부로 만나는 것이야.』

『글쎄, 그럴까요? 성경에도 부활하는 날은 서로 만난다구 하긴 했지 마는.』

『그렇게 한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야, 수없이 여러 번 만나는 거지.』

『글쎄, 그랬으면 작히나 좋겠어요! 그렇게 믿어지질 아니하니깐 걱정이지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소?』

『아무 것도 없어질 것만 같어. 무엇이 남겠어요? 다 썩어져서 없어지지. 숯이 다 타면 불이 사라지구 재만 남는 모양으루. 안 그럴까요?』

『저마다 사라지나?』

『저마다라니?』

『아주 성인이 다 되어서, 부처님이 다 되어서말요, 아무 원두 한두 욕심두 다 없어져야 사라진다는 거요. 불교에서 그것을 열반이라구 아니 하우? 그렇지만 원두 많구 한두 많구 욕심도 많은 우리 중생들은 사라지려야 사라지지를 앓는다는 것이요. 그 원과 한과 욕심을 다 풀구야 사라지지.』

(중략)

『그것이 불교의 이치요?』

『석가여래께서 먼저 가르치신 것이니까 불교 이치라고 하겠지마는, 누구나 우주와 인생을 바루 보면 이 이치에 도달하여야 할 것이니까 불교 이치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치지-그것이 진리란 말이요. 진리야 하나 뿐 아니요?』³⁸⁾

38) 이광수, 위의 책, 77-78쪽

두 사람의 대화에서 불교의 인연, 윤회, 전생, 열반 등의 세계관은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개념과 만나 대화한다. 특히 안빈은 ‘불교의 이치’라고 묻는 옥남에게 ‘그냥 이치’라고 대답함으로써 특정 종교에 구속되지 않는, 즉 개방적 태도를 나타낸다.

안빈에 대한 사랑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지도 않는 허영과 결혼한 순옥은 허영을 향해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펼쳐 보이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뿐이다. 순옥이 남편 허영과 그의 여자 이귀득의 인간적 배반에 절망하자 안빈은 그녀에게 불교와 기독교를 두루 인용하며 불교의 인욕, 자비와 기독교의 인내, 사랑을 실천할 것을 독려한다. 이것은 불교의 인욕과 자비가 기독교의 인내, 사랑, 용서와 소통되는 동일개념임을 말한 것이다. 그는 <인욕(忍辱)>(동광, 1931.1)이란 글에서도 불교의 육바라밀의 하나인 인욕은 기독교의 ‘성내지 말라’는 개념이 동일개념임을 말한 바 있다.³⁹⁾

종교다원주의자인 길희성은 보살의 자비와 예수의 사랑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보살의 자비는 공(空)에 근거한 무차별적인 사랑이며, 예수의 사랑 역시 무조건적 무차별적 무아적 사랑이라는 것이다. 보살과 예수의 순수하고 무조건적이며 무차별적인 사랑과 자비는 초월적 진리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 그리고 거기서 오는 무아적 진리의 자각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무차별적인 자비이다. 일찍이 인류가 실현하고자 했던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도덕적 힘이며, 무지와 탐욕으로 병든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힘이라는 것이다.⁴⁰⁾ 바로 그러한 사랑을 안빈은 절망에 빠진 순옥에게 실천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선생님, 저는 인제는 더 나아갈 기운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선

39) 이광수, 「인욕」, 『이광수 전집』 제8권 349쪽.

40) 길희성, 『보살 예수』, 현암사, 2004, 202-205쪽.

생님, 연속해 오는 이 타격들이 제게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보다도 더 큰 타격이 올 때는 어떻게 하려고 어느 사이에 그런 말을 하오? 다 참아야지- 참으되 부드럽게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참는 것 말고,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대해서 참는 모양으로 모든 것을 순순히 참는단 말ियो. 그러길래 주인욕지(住忍辱地)하여 유화선순하는 것을 석가여래께서 보살의 안락행의 첫 허두에 말씀하셨소. 주인욕지-욕을 참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서, 그 말ियो. 유화선순(柔和善順)이란 것은 부드럽게 화평하게 선하게 순하게 한 말요. 그러니까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첫 비결이 참는 것이란 말ियो.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야 누구는 못하나?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길래 참는 것이라자안 그렇지소?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소? 용서하라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해를 악인에게 선인에게나 꼭 같이 비치시는 것을 배우라고. 그리고 땀 나중에 하늘 위에 계신 너희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또 바울도 그러지 아니하셨소? 사랑을 참고 사랑을 용서한다고. 또 예수께서 그러셨지? 형제가 내게 잘못할 때에 몇 번이나 참으리까,고 누가 여쭙 때에 너희 조상께서 일곱 번 참고 용서하라고 하였거니와 나는 진실로 너희 다려 이르노니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참으라고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무한히 참고 영원히 참으라고 하셨소. 사랑은 참는 것이니까. 그런 사랑이 점점 높은 정도에 올라가면 참는다는 것마저 없어질 것이요. 모두 자비니까 온통 자비니까 자비 속에 참는 것은 어디 있소? 참는다는 것이 아직 사랑이 부족한 것이지 정말 나를 완전히 잊고 보살행을 하는 마당에야 참는다는 생각이 날 까닭이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벌써 참는다는 경계를 넘어서셨지.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직 참는 시대야 억지로라도 참는 공부를 하는 시대요. 아니 참는-참을 것이 없는 지경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참는 가시밭을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는 것이요. 우리 중생이-인류가 말이지-다 참는 공부를 완성한 때면 이 사바사계가 곧 극락정토요, 천국이 거기 가는 중간도 못 되고.』⁴¹⁾(고덕체는 필자)

위 인용문 중에 “하늘 위에 계신 너희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구절은 마태복음 5장 48절이다. 안빈은 순옥

41) 이광수, 『이광수전집』 제6권, 240쪽

에게 마태복음을 인용하며, “나는 순옥이가 사랑에서 완전하기를 바라오, Be perfect as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is Perfect! 이 말을 기억하기 바라오.”라고 했다. 이는 순옥으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비폭력의 자기희생과 이타적인 사랑을 끝없이 실천할 것을 독려한 것이다.

이광수는 <톨스토이의 인생관>, <예수의 사상>에서도 이 구절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 38-48절을 인용한 적이 있다. <두웅과 나>에서도 “마태복음 5, 6, 7장과 누가복음 12장을 그대로 실행해보려고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설교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이광수가 톨스토이를 통하여 받아들인 기독교의 근본사상이자 그가 실천하고자 한 기독교 정신의 요체이다.

산상수훈은 예수의 윤리적 교훈을 집대성하여 편집한 내용으로, 인류의 도덕적 의식의 최고봉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산상수훈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신빙성이다. 예수는 절대사랑과 절대용서를 가르쳤고, 인간이 온전해질 것을 요청했다. 산상수훈의 근본정신은 생명공동체의 실현, 곧 하느님 나라의 실현이며, 그 핵심은 자유로운 인간의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다.⁴²⁾ 이 산상수훈을 톨스토이와 이광수는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과 지상낙원주의로 받아들였다.

톨스토이(1828-1910)도 예수의 산상설교가 문자 그대로 실현되어야 하고 또 철저히 실현될 수 있다고 믿은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교회가 예수의 요구를 무력하게 했다고 비난하였다. 톨스토이에게서 폭력의 포기는 산상설교의 핵심이다. 모든 국가는 폭력 위에 세워져 있다. 전쟁과 사형은 예수의 말씀에 어긋나며, 인종 박해와 사적 소유, 신분 차이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가 완전히 무정부주의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자, 그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산상설교의 요구를 지킨다면, 이 땅에 낙원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³⁾

42) 김경재, 『종교다원시대의 기독교 영성』, 다산글방, 1992, 220-223쪽.

안빈은 순옥에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설교한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현할 것을 격려했던 것이다.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은 결국 상대방만 아니라 그 자신을 구원하게 만든다고 역설한다. 이것을 불교적 표현으로 말하면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보살도의 구현이다. 보살은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형으로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로움(自利)과 타인의 이로움(利他)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이다. 그는 생사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단 하나라도 있는 한, 스스로 열반에 드는 것을 포기하고 중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존재이다.⁴⁴⁾ 순옥이 그녀를 배신하고 기만한 남편 허영, 시모 한씨, 그리고 허영의 여자인 이귀득에게 보여준 태도는 결코 인간적 경지에서는 취할 수 없는 기독교의 순교자적 태도, 즉 비폭력 무저항의 절대사랑과 절대용서에 대한 실천이었다. 동시에 불교적 보살도의 숭고한 실천이었다.

작품에서 석순옥은 안식교도로 설정된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안식교 선교사들의 청정하고 경건한 생활을 흠모하여 왔다. 석순옥과 그녀의 오빠 영옥을 비롯한 순옥의 가족 전체를 안식교 신도로 설정한 것은 안식교가 의료사업과 구제활동에 기여한 기독교 종파이며, 더욱이 이광수가 비판했던 장로교 신학에서 배척한 종파⁴⁵⁾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던 작가

43) 『산상설교의 해석사와 문학구조』, <http://blog.naver.com/holyhillch/60011533669>.

44) 김희성, 앞의 책, 188쪽

45) 안식교는 교육사업과 의료사업, 그리고 구제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훌륭한 종파지만 성격해석 및 교리면에서 정통 기독교와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특히 장로교회로부터 배척되어 왔다. 미국의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 1782-1849)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박한 재림과 천년왕국의 도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시작되었는데,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 성소를 주장한 히람 에드슨(Hiram Edson)과 토요일 안식일을 제창한 요셉 베이츠(Joseph Bates)를 거쳐 엘렌 화이트(Ellen White, 1827-1915) 여사에 의해 1863년에 공식적으로 제칠일안식일 재림교회로 창립된다. 우리나라에는 1904년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유은현과 손홍조가 일본인 구리아 히데시에게서 교리를 배워 귀국함으로 전교가 시작되었고, 해방과 더불어 전국에 퍼져갔다. 조선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발행한 “신학지남”에 안식교를 비판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실린 것을 보면 안식교의 도전이 거센 상황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의 의도적 설정으로 보아진다. 이는 안빈의 의원 및 북한요양원, 그리고 석순옥이 북간도에서 근무했던 병원 등과 연속선상에 있으며, 작중인물들의 직업이 의사, 간호사, 교사 등으로 설정된 것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은 인간의 육체적 치료를 넘어서서 정신적·영적 구원이라는 이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궁극적으로 기여한다. 안빈은 환자 치료에 있어 의사보다도 간호사가 중요하고, 특히 환자에 대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순옥으로 상징되는 ‘돌봄’이라는 여성적 가치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순옥은 중생을 돌보는 존재, 즉 보살도를 실천하는 인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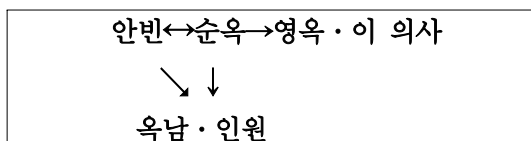
작품에서 안빈을 제외한 순옥, 옥남, 인원, 영옥 등은 모두 기독교 신도인데, 종교다원주의자로 보이는 안빈과 그들은 종교로 인하여 대립하지 않는다. 그들은 종교를 초월하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 종교다원주의는 종교 간에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으며,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빈, 순옥, 인원, 영옥, 수선, 이 의사가 참여한 북한요양원이야말로 종교다원주의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혈연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물학적 가족이 아니다. 이들 사이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끼어들지 않고, 성적 관계가 부재하는 대신 오로지 뜻이 맞고 서로 좋아서 자발적으로 모인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들의 관계는 앤서니 기든스가 말한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이다. 즉 관계 외적인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관계 그 자체의 내적인 속성에 따라 형성되고 지속되는 관계이다.⁴⁶⁾ 이들에게 목적이 있다면 오직 형제자매처럼 서로 사랑하며, 병든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뿐이다. 이 새로운 가족은 “‘사랑’의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감정적·정신적 결속에 의해 만들어진”⁴⁷⁾ 종교다원주의적인 공동체요, 지상 낙원인 것이다.

(인터넷: www.shalombang.com)

46) Anthony Giddens,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2001, 103-104쪽

47) 김현주, 「이광수의 민족 만들기」, 『작가세계』 57집, 2003년 여름호, 76쪽.

이들은 서로 정신적 영향을 미치며 영적 구원을 얻는다. 작품에서 작중인물들 사이의 정신적 영향관계를 도표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안빈은 순옥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두 사람은 안빈의 고백처럼 상호영향의 관계에 있다. 순옥이 처음에는 간호사였다가 뒤에 의사가 되는 것은 그녀가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련과정을 통하여 평생을 두고 흠모하고 존경해온 안빈과 동일한 수준의 자아완성에 도달하였다는 의미로 읽힌다. 안빈의 처인 옥남과 순옥의 친구인 인원은 안빈과 순옥으로부터 정신적 감화를 받으며, 순옥은 오빠 영옥과 북한도에서 만난 이 의사까지 감화시켜 북한요양원에 동참하게 만든다. 안빈과 순옥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 순수한 사랑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안빈이 ‘사랑’에 관해 설교하는 이데올로기적 존재라면, 순옥은 그 사랑을 실천(practice)을 통해서 완성시킨 존재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데올로기적 인물인 안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구원에 자신을 던져 희생하는 실천적 인물 석순옥이다. 그리고 이는 실천적 종교를 중시한 톨스토이와 이광수의 종교관과 일치한다. 이광수는 결혼이라든가 성적 관계를 배제한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이자 지상 낙원의 재현을 통해서 그가 추구한 사랑의 최고봉을 보여주고자 했다.

북한도생활에 심신이 지친 나머지 결핵에 감염된 순옥은 북한요양원에서 한 동안 환자로서 요양을 한다. 그는 그곳을 지상의 낙원으로 인식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느낀다. 이 기쁨과 평화를 통해서 작가는 타인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자기구원에 이

르는 자리이타의 보살도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광수가 생각하는 이상적 종교는 결코 내세지향적인 종교가 아니다. 지상에서도 낙원을 구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세지향적 종교이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영향이며, 산상수훈에서 설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이기도 하다. <예수의 사상>에서 이광수는 하느님의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면 세상에 천국이 오리라는 것이 예수의 사회관이라고 설파하였다.⁴⁸⁾

이 작품의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에 그치지 않는다. 순옥이 복간도 병원에서 만난 독일인 가톨릭 신부와 수사, 수녀들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 순옥은 깊은 감동을 받는다. 순옥은 “제 재산이라는 욕심을 전혀 떼어 버리고 제 몸의 행복이라든지, 안락이라든지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길인 사랑의 도리를 세상에 퍼는 것으로 일생을 바치는 그들의 생활이 실로 높고 귀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기껏해야 인연이 있는 남편과 그의 아들, 시어머니를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 수사, 수녀들의 삶이 더 숭고하고 고결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순옥은 “가톨릭교의 교리에 대하여서는 공명이 아니되었으나 그 교역자들의 행, 즉 생활방식에 대하여는 전폭으로 흠모”하게 된다. 그리고 신부와 수녀들도 순옥을 한 성도로서 대우하게 된다. 순옥이 보여준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을 가톨릭 신부, 수사, 수녀의 자기희생적 삶에서도 발견함으로써 이광수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는 종교다원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런데 이광수의 종교다원주의자로서의 이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 과학에서 인과율이라고 하는 인과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가 결국은 마찬가지로지는, 이 우주와 인생을 지배하는 제일 근본이 되는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란 말야”⁴⁹⁾라고 불교의 인과의 법칙이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인과율과 다르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종교와 과학 간의

48) 『이광수전집』 제 8권, 519쪽.

49) 『이광수전집』 제 6권, 58쪽

대화까지도 시도한다. 뿐만 아니라 안빈은 동물적 사랑과 성인의 자비적 사랑을 혈액 속의 방향물질로 구분하는 실험을 하는데, 전자는 비릿한 유황냄새가 나는 아모로젠이며, 후자는 맑고 그윽한 향기의 아우라몬이다. 그리고 순옥의 피에서는 성인의 피에서나 발견되리라고 생각되는 아우라몬이 추출된다. 이것은 순옥의 안빈에 대한 사랑이 본능적 차원이 아니라 순수한 영적 사랑의 차원임을 과학실험을 통하여 밝힌 것이다. 또한, 사랑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호르몬이라는 생리학적 결과로 입증한 것이다. 이광수는 일찍부터 기독교가 과학과 분리된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만큼 호르몬 실험은 그의 종교다원주의적 태도가 종교에 한정되지 않고 현대과학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광수 소설의 여주인공은 <사랑>에 와서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희생과 이타주의의 정점을 보여주는 여성으로 변화한다. 그는 <무정>이나 <개척자>에서 신념을 갖고 주체적 신여성을 추구하던 여성상이 더 이상 아니다. 또한, <재생>, <그 여자의 일생>, <사랑의 다각형> 등에서처럼 황금에 눈멀어 파멸의 길을 걷는 여성상도 아니다. 순옥은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지적 여성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과 도덕의 준거를 안빈에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주체성을 드러낸다. <사랑>에서 보여준 여성상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는 후퇴다. 이 작품을 여성의 희생을 미화한 안티 페미니즘으로 읽을 개연성마저 충분하다. 순옥은 1930년대 이후에 발표한 <신여성의 십계명>, <여자의 힘>, <여성교실> 등에서 보여준 이광수의 보수적 여성관⁵⁰⁾을 반영하고 있다. 순옥의 비폭력·무저항의 사랑이 아무리 숭고한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며, 중생구제라는 불교적 보살도의 실천이라고 해도 그 길이 순옥의 친구 인원이 안빈에게 던진 질문-“석가여래나 예수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천하 사람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셨지마는, 순옥이야 그게 무엇입니까? 변변치도 아니한 병쟁이 하

50)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292-294쪽.

나를 위해서 일생을 망쳐버리니.”-처럼 인간적 차원에서는 결코 이상화될 수 없다. 여성의 희생을 종교적 신앙으로 미화하고 이상화한 <사랑>에 나타난 ‘사랑’은 분명 안티 페미니즘이고, 비현실적이며, 관념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작품이 보여준 무저항 비폭력의 무조건적 절대사랑과 절대용서가 일제강점 말기인 1930년대 말의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민족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근대 초기에 기독교의 보수주의, 배타주의, 그리고 대사회적 무관심 등에 대해서 그토록 예리한 비판의식을 보였던 이광수가 <사랑>에 와서 대사회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은 채 개인적 구원을 목표로 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가. 이 작품에서 추구한 여성상과 사랑에 대한 부정적 질문들은 얼마든지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초기에 근대지향의 민족주의자였던 이광수가 193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반민족적 친일의 길을 걸었듯이 종교적 태도에 있어서도 춘원은 초기에 보여주었던 침예한 비판정신을 상실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무차별적 자비를 이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의 개인적 구원을 목표로 한 무조건적 사랑(자비)과 용서란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초기에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보수주의로의 명백한 회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이 작품에서 작가가 의도한 주제는 비폭력·무저항의 사랑과 자기희생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구원이다. 이광수는 이 작품에서 불교의 인연, 윤회, 전생, 열반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개념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개념이며, 불교의 인욕, 자비가 기독교의 인내, 사랑과 동일개념임을 말하였다. 특히 비폭력 무저항의 절대사랑과 절대용서는 불교의 보살도에서 말하는 자리아타의 구원과 소통되는 개념임을 여러 차례 천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요양원’을 통해서 내세지향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세지향적 낙원, 지상의 유토피

아를 구현하고자 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심적인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지만 작가는 가톨릭, 나아가 현대과학까지도 포용하는 폭넓은 종교다원주의적 사랑을 주제로서 제시했다.

III. 결론

본고는 이광수의 기독교 사상과 종교다원주의를 사회평론과 논설, 장편소설 <사랑>을 텍스트로 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광수는 기독교의 근대화라는 대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장로교회의 배타적 근본주의적 보수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둘째, 이광수는 기독교의 근본사상을 비폭력주의, 무저항주의, 사랑으로 파악했다.

셋째, 이광수는 톨스토이의 영향으로 종교다원주의자가 되었으며, 내세 추구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상의 낙원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문학적으로 구현한 작품이 바로 <사랑>이다. 주인공 석순옥은 비폭력과 무저항의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이며, 이는 불교적으로 볼 때에는 보살도의 구현이다. 작가는 비폭력 무저항의 숭고한 사랑과 구원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에도 존재하며, 그것을 과학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적 태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북한요양원을 통해서 내세의 천국이 아니라 지상에서 구현되는 유토피아를 재현하였다.

결론적으로, 이광수는 <사랑>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현대 과학까지를 포용하고 종합하는 종교다원주의적 종교관을 통해 가장 이상화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의 실천이

며, 절대순수의 정신적 사랑이고, 자리아타의 보살의 길이며, 지상의 유토피아의 구현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 차원에서 구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제말의 민족현실과는 거리가 먼 관념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

주제어 : 이광수, 기독교 사상, 종교다원주의, <사랑>, 톨스토이

참고문헌

1. 자료

이광수 전집 제 6, 9, 8, 10권, 우신사, 1979.

2. 논저

기독교사상사 편, 『한국의 기독교사상』(『기독교사상』 200호 기념 별책부록), 기독교사상사, 1975, 75-80쪽.

길희성, 『보살예수』, 현암사, 2004, 150-205쪽.

김경재, 『종교다원시대의 기독교 영성』, 다산글방, 1992, 220-223쪽.

김주연 편, 『현대문학과 기독교』, 문학과 지성사, 1984, 전 쪽.

김현주, 「이광수의 민족 만들기」, 『작가세계』 57집, 작가세계사, 2003년 여름호, 65-79쪽.

김홍호·이정배 편, 『동양사상과 신학』, 솔, 2002, 330-350쪽.

동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편, 『이광수 연구』(상)·(하), 태학사, 1984, 전쪽.

목창균,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인가」, 『활천』 462권, 기독교 대한성경교회 활천사, 1992, 전 쪽.

박영호, 『씨을-다석 유영모의 생애와 사상』, 홍익재, 1985, 56-63쪽.

소재영 외, 『기독교와 한국문학』, 대한기독교서회, 1990, 전 쪽.

송명희, 『이광수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국학자료원, 1997, 286-336쪽.

신광철, 「식민지 지식인의 기독교 인식-이광수의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제 43호.

신동욱 편,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새문사, 1981, II118-132쪽.

신익호, 『기독교와 현대 소설』, 한남대학교출판부, 1994, 5-54쪽.

윤홍로, 『이광수 문학과 삶』, 한국연구원, 1992, 전 쪽.

이길연, 『한국 근·현대 기독교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01, 140-158쪽.

이판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지식산업사, 1981, 9-47쪽.

이인복, 『한국문학과 기독교 사상』, 우신사, 1987, 전 쪽.

주재용, 『한국 그리스도교 신학사』, 대한기독교서회, 1985, 50-100쪽.

최정석, 「작품 <사랑>의 사랑분석」, 『효성여대연구논문집』 8·9집, 효성여대, 1971, 138-141쪽.

톨스토이, 『참회록·종교론』, 김병철·김학수 역, 을유문화사, 1981, 전 쪽.

Anthony Giddens,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2001, 91-112쪽.

인터넷 : www.shalombang.com

<http://blog.naver.com/holyhillch/60011533669>.

<Abstract>

Yi Kwang-soo's Christian Thought and Religious Pluralism

Song, Myung-Hee

This paper analyzes Yi Kwang-soo's christian thought and religious pluralism by selecting a social criticism, an editorial, and the novel *Love* as a text. The conclusion from the analysi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ly, Yi Kwang-soo was positive of a role toward the society, called modernization of Christianity, while was strongly critical of exclusive, fundamentalist conservative theology of presbyterian.

Secondly, Yi interpreted the fundamental idea of Christianity as non-violence and love under the influence of Tolstoy.

Finally, Yi Kwang-soo became a religious pluralist under the influence of Tolstoy, and intended to realize paradise on earth not a religion pursuing the world to come. Furthermore *Love* is the very work in which this is embodied in literary way. Seok Soon-ok is a character who practices non-violent, christian love, and this is in a Buddhist view the realization of doctrines of Bodhisattva. The author assumed the religious pluralistic attitude that non-violent, noble love and salvation exists in Buddhism, Roman Catholicism, and any religion as well as in Christianity, and it could be proved also by scientific thought. In addition, through North Korean sanatorium, he re-created utopia which would be realized on earth not heaven in the

future life.

Consequently, Yi Kwang-soo, in *Love*, showed a figure of the most idealized love through religious pluralistic view of the religion which would comprehend and integrate Christianity, Buddhism, Roman Catholicism, and scientific thought. It is the very practice of non-violent love, mental love of absolute purity, a way of Bodhisattva practicing the self-benefit and the benefit of others, and the realization of utopia on earth.

Key Words : Yi Kwang-soo, christian thought, religious pluralism,
Love, Tolstoy